

남녀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매개효과

릉운(凌云)¹⁾ 김태연²⁾

요약

본 연구는 4세 또래놀이상호작용과 6세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관계구조에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패널 데이터 5~7차년도 종단자료를 이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과 다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세 변인 간의 관계구조를 검증한 결과, 이전 시점에서 또래놀이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유아일수록 언어발달 수준이 더 높았고, 언어발달 수준의 증가는 이후 시점의 사회적 유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구조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총효과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교육적, 정책적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또래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동은 출생 이후 부모를 비롯한 주양육자와의 애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 형제자매, 이웃, 교사, 또래 등과의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능력을 키워간다.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과의 한정적 관계를 맺던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며 첫 번째 전환기를 맞이하고,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두 번째 사회적인 전환기를 겪게

1)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보다 확장된 인간관계 속에서 본격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성장을 이루며, 유초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은 아동의 이후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곽나람·윤예린·김성식, 2021).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강조한 일과와 놀이 활동을 위한 시간/공간의 부족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며, 이 시기의 다양한 변화는 아동의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장혜진·김은설·송신영, 2014). 학교에 부적응한 1학년 아동은 환경과 사람에 대한 거부감, 불안, 무서움 등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며(김수정·곽금주, 2010), 상습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익히지 못하거나(조선영, 2021), 또래집단에서 소외되는 등의 문제를 겪는다(김경은, 2017; Kim, 2008). 따라서 유초 전환기 아동의 안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유능성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기술로 개인이 속한 사회의 규준과 조건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자원을 통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Raver & Zigler, 1997).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아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최혜진·곽효민, 2017). 특히 학령전환기의 유아에게 사회적 유능성은 내재화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정진나, 2021).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성은 이후 성인기의 긍정적인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기도 하다(Parker & Asher, 1987). 이에 따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2015 개정 초등학교통합교과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에 '더불어 사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유아가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세 가지 하위요인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하위요인인 협력성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기 등과 같은 타인과 잘 어울리게 협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주장성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동료를 칭찬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아이에게도 같이 하자는 말을 하기와 같은 타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자기통제는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등과 같은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의 인지, 행동, 정서를 잘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Gresham & Elliott, 1990). 이런 3가지 하위요인은 각각 사회적 유능성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협력성은 자이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을 타인이나 집단과 연결시키는 의식이다. 주장성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함을 강조한다. 자기통제는 집단에서 타인의 관점, 입장, 역할에 대한 이해나 공감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세 측면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을 구성하지만 서로 독립되어 유아가 직면해야 할 세 가지 다른 도전이다. 지금까지 변인 간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변인으로 분석하였다(이문옥·전홍주, 2018; 임현주, 2018; 최윤희·문혁준, 2018).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유능성과 다른 변인 간의 논리관계의 큰 틀을 드러내는 데에 유리하나, 동시에 하위변인 간 점수의 합산으로 인해 각 하위변인의 특성이 상쇄되므로,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들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을 각각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각 하위변인이 다른 변인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남녀 아동의 성차를 보고해왔다(이선정, 2020; 최혜진·곽효민, 2017). 최근 초등교육에서도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추구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다(송나운·홍주연·노태희, 2020). 아동의 성별은 출생부터 결정되어 사회성 발달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지만, 남녀가 가진 생물학적 차이가 그대로 심리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의 요구에 따른 성 유형과 과정을 거치면서, 남아에게는 경쟁성, 독립성, 활동성 등이 강조되는 반면, 여아에게 공감성, 의존성, 수동성이 강조되며 성별 간 차이가 강화된다(조복희·이윤희, 2020). 성격과 태도의 차이는 다시 남녀 유아의 사회적 대응방식의 차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회화 과정에서 유아가 받는 성별의 영향에 대해 단순히 그 존재 여부를 살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된 요인과의 관계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3~5세는 유아가 자신의 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전체적인 관계구조에서 성별 차이가 가져오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물리적 환경, 가족 관계, 또래 관계, 유아-교사 관계 등)과 개인적 요인(기질, 자아존중감, 행복감, 언어발달 등)으로 나뉜다. 4~6세 유아기는 유아가 맨 처음에 정식으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되는 특별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의 또래 관계는 유아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자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아주 잘 반영할 수 있는 관계이어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 중 또래 관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주는 영향에 대해 주목을 많이 받았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ulotsky-Shearer, Bell, Carter, et al., 2014; Hong, Kang,

Lee, et al., 2017). 또래 관계는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성인과의 관계에 비해 더 평등하며 유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장유진·홍예지·이강이, 2018). 유아는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래들과의 수평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탐색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협상, 타협, 조정 등의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연습한다(백지숙·권은주, 2017). 예를 들어,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또래와 잘 어울리고 협력하며, 또래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을 익힌다(최효선, 2020).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사회인지능력 역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Ross, Vickar, & Perlman, 2010).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정 상황에서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를 짐작하는 것은 우세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느 정도 억제해야 가능한 일이다(장유진·홍예지·이강이, 2018). 이렇듯 낮은 관계를 넘어서 유아 스스로 이루어낸 초기 또래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이 더 강해지며, 이렇게 형성된 유아기 또래 관계는 이후 친구와의 우정, 연인과의 친밀감 등 다양한 사회적 대인관계의 기초가 된다.

사회적 유능성에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유아의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생리적 기초가 되는 언어발달에 주목하였다. 유아는 언어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임현주, 2020). 언어발달수준이 높은 유아는 놀이상황에서 또래에게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이선미, 2017),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며 협조적이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장영은·성미영, 2015).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은 유아가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양보할 수 있는 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유진·홍예지·이강이, 2018). 다시 말해, 언어는 유아가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 필수적 요인이며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매체가 되는 것으로 언어발달은 유아의 사회성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6세 유아기는 유아가 어린이집과 같이 또래집단이 존재하는 양육환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또래 관계에 노출된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시작되고 빈도가 증가한다. 또한, 유아는 이미 습득된 언어의 사용과 새로운 언어 학습 모두에 있어 중요한 기회와 맥락을 경험한다. 가정에서 양육자의 도움에 의존하던 유아는,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또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활동이나 놀잇감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유아의 언어는 사회적 인지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발달된 언어는 다시 이후 또래 관계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갈등의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장영은·성미영,

2015). 유아는 다양한 또래 관계를 통해 독백과 집단적인 독백 같은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사회적 언어로 나아가는 과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언어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발달적 과정을 거친다(조복희·이윤희,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함으로써, 언어발달을 매개로 한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또래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박성덕·장연주, 2016; 임현주, 2020). 유아가 놀이하며 이루어지는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 몸짓 등의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언어적 교류가 활발히 나타난다. 유아는 놀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며(박영희·김신곤, 2017), 또래와 대화하면서 언어가 가지는 규칙성을 깨닫게 된다(임현주, 2020). 놀이 중의 대화는 유아가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벗어나 타인과 소통하게 하며, 언어 유창성을 높인다(백지숙·권은주, 2017). 유아는 또래놀이 중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기한다. 또한, 유아가 친구의 제안을 수용하고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고차원적인 사고와 언어능력의 발달이 일어난다(임현주·최항준, 2017). 이를 통해 유아의 또래놀이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점을 종합해보면, 유아기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성을 단편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두 변인 간의 일대일 관계에만 집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보다 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특정시점에서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유아의 언어발달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기에 시간 흐름에 따른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패널의 4세에서 6세까지 3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언어발달을 매개로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유아기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 등 세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의 영향력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남아들은 대체로 여아들에 비해 또래놀이상호작용이 낮았고(김상아·이윤선, 2021), 언어발달 수준도 낮았으며(이민주·이영신·유정은, 2015), 사회적 유능성도 낮다고 보고되었다(이선정, 2020). 그러나 개별 변인에서 나타난 성차만을 근거로 관계구조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으리라 추측할 수는 없으며 세 가지 변인 간 관계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방식 차이가 남녀 아동의 성격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사회적 대응방식으로 연결되므로, 사회화 과정에서 유아가 받는 성별 요인과의 관계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3~5세는 유아가 자신의 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전체적인 관계구조에서 성별 차이가 가져오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집단 분석을 통해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구조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한 같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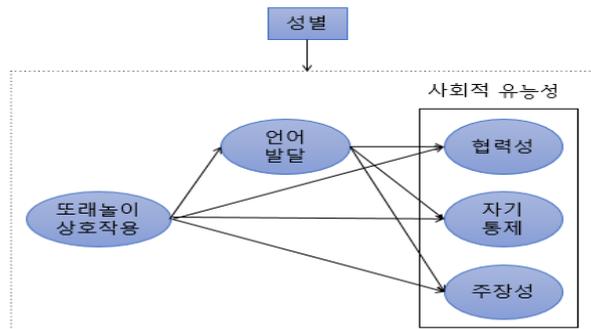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4세 또래놀이상호작용, 5세 언어발달, 그리고 6세 사회적 유능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4세 또래놀이상호작용과 6세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5세 언어발달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4세 또래놀이상호작용, 5세 언어발달, 그리고 6세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구조를 상정하고, 아래와 같이 [그림 1]에 변수 간 관계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5차년도(2012)에서 7차년도(2014)까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5개 권역 2,150명의 패널 자료 중 7차년도 조사까지 완료한 1,620명을 1차적으로 선별하고, 교사 대상 조사 결과가 포함된 자료만을 2차적으로 선별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1,203명의 유아에 대해 담임교사가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월령은 7차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72개월에서 79개월까지였으며, 평균 월령은 남녀 모두 75개월이었다. 연구 대상의 성별과 월령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 | 평균 월령 | 표준편차 | 빈도 | 백분율 |
|----|----|-------|------|------|-------|
| 성별 | 남아 | 75.07 | 1.46 | 622 | 51.7 |
| | 여아 | 75.12 | 1.46 | 581 | 48.3 |
| 전체 | | 75.10 | 1.46 | 1203 | 100.0 |

2. 측정도구

또래놀이상호작용은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년), 언어발달은 6차년도(2013년), 사회적 유능성은 7차년도(2014년)의 자료에서 추출하였으며 측정 변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또래놀이상호작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놀이상호작용 척도는 Fantuzzo, Coolahan, Mendez, et al.(1998)의 <유아 놀이행동 척도(Penn Interactive Play Scale: PIPS)>를 최혜영·신혜영(2008)이 한국 적용을 위해 타당화한 <유아 또래놀이행동 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였다. 이 척도는 교사평정용으로, 유아가 최근 1개월 동안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보이는 행동에 대한 놀이관찰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원 척도는 총 30문항이고 놀이상호작용(9문항), 놀이방해

(13문항), 놀이 단절(8문항) 등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놀이상호작용(9문항) 문항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예시는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이고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때때로 그렇다(3점)’, 그리고 ‘항상 그렇다(4점)’ 등으로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0이었다.

나. 사회적 유능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유능성 척도는 Gresham과 Elliott(1990)의 도구를 서미옥(2004)이 한국에서 타당화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재수정한 척도이다. 이 척도 역시 교사 평정을 통해 측정된다. 원 척도는 총 21개 문항으로, 주장성(5문항), 협력성(9문항), 자기통제(7문항) 등 세 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 동질성이 높은 문항을 삭제한 후, 최종적으로 협력성 6문항, 자기통제 5문항, 주장성 5문항 등 총 16문항을 이용하였다. 협력성의 문항 예시는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자기통제의 문항 예시는 “성인(부모, 교사 등)과의 갈등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한다”, 주장성의 문항 예시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이다. 이 척도는 3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매우 자주 그렇다(3점)’ 등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다. 언어 발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발달 척도는 이종숙·신은수·박은혜 외(2008)가 개발한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의 일부를 활용하였으며, 교사 평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조방정식의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분 동질성이 높은 2개 문항을 삭제한 후 나머지 9문항을 이용했다. 이 척도의 문항 예시는 “과일, 동물 등의 큰 범주어(분류어)를 사용한다”이며 2점 척도로 ‘아니오(0점)’, ‘예(1점)’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발달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66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또래놀이상호작용, 유아 언어발달과 유아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에 활용되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여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또래놀이상호작용, 유아 언어발달과 유아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4세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이 5세 유아 언어발달을 매개로 6세 유아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구조 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다섯째, 4세 또래놀이상호작용, 5세 언어발달, 그리고 6세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구조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아와 여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차이분석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또래놀이 상호작용($t = -8.50, p < .001$)과 언어발달($t = -4.49, p < .001$), 사회적 유능성($t = -6.18, p < .001$) 모두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놀이상호작용의 경우 남자는 평균 3.03점($SD = .35$), 여자는 평균 3.19점($SD = .30$) 이었고, 언어발달의 경우 남자는 평균 7.51점($SD = 1.47$)과 여자는 평균 7.88점($SD = 1.37$)이었으며, 사회적 유능성의 경우 남자는 평균 2.47점($SD = .38$)과 여자는 평균 2.59점($SD = .32$)으로, 세 변인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

| 성별(M) | 남아(622) | | 여아(581) | | t값 | |
|----------|---------|------|---------|------|----------|----------|
| | M | SD | M | SD | | |
| 또래놀이상호작용 | 3.03 | .35 | 3.19 | .30 | -8.50*** | |
| 언어발달 | 7.51 | 1.47 | 7.88 | 1.37 | -4.49*** | |
| 사회적 유능성 | 전체 | 2.47 | .38 | 2.59 | .32 | -6.18*** |
| | 협력성 | 2.57 | .44 | 2.76 | .34 | -8.36*** |
| | 자기통제 | 2.33 | .49 | 2.50 | .42 | -6.27*** |
| | 주장성 | 2.56 | .46 | 2.54 | .45 | .99 |

*** $p < .001$.

2. 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즉,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 언어발달의 매개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도 상정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연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의 평균값은 2.41 ~ 7.69, 표준편차는 .33 ~ 1.43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1.70에서 -.56 사이의 분포를 나타냈고, 첨도는 -.39 ~ 4.12로 나타났다. 연구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r = .20 \sim .63$).

〈표 3〉 연구변인 기술통계와 Pearson상관관계

| 변인 | 또래놀이상호작용 | 언어발달 | 사회적 유능성 | | |
|----------|----------|--------|---------|--------|------|
| | | | 협력성 | 자기통제 | 주장성 |
| 또래놀이상호작용 | 1 | | | | |
| 언어발달 | .30*** | 1 | | | |
| 전체 | .34*** | .29*** | | | |
| 협력성 | .24*** | .24*** | 1 | | |
| 자기통제 | .29*** | .22*** | .63*** | 1 | |
| 주장성 | .25*** | .20*** | .38*** | .55*** | 1 |
| 평균 | 3.11 | 7.69 | 2.66 | 2.41 | 2.55 |
| 표준편차 | .33 | 1.43 | .41 | .47 | .45 |
| 왜도 | -.85 | -1.70 | -1.21 | -.56 | -.84 |
| 첨도 | 3.53 | 4.12 | .80 | -.39 | .05 |

*** $p < .001$.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 모형은 χ^2 값이 1754.82($df = 517$), CFI는 .90, IFI는 .90, RMSEA 는 .05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 변인 간 직접효과는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다.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언어발달($\beta = .30, p < .001$), 협력성($\beta = .18, p < .001$), 자기통제($\beta = .24, p < .001$), 주장성($\beta = .21, p < .001$)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언어발달 역시 협력성($\beta = .19, p < .001$), 자기통제($\beta = .15, p < .001$), 주장성($\beta = .13, p < .001$)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4> 모형의 경로계수

| | <i>B</i> | <i>S.E.</i> | β | <i>C.R.</i> |
|---------------|----------|-------------|---------|-------------|
| 또래놀이상호작용→언어발달 | 13.32 | 1.21 | .30*** | 8.96 |
| 또래놀이상호작용→협력성 | .22 | .04 | .18*** | 5.22 |
| 또래놀이상호작용→자기통제 | .34 | .04 | .24*** | 6.92 |
| 또래놀이상호작용→주장성 | .29 | .04 | .21*** | 5.84 |
| 언어발달→협력성 | .01 | .00 | .19*** | 4.87 |
| 언어발달→자기통제 | .01 | .00 | .15*** | 3.83 |
| 언어발달→주장성 | .00 | .00 | .13*** | 3.90 |

*** $p < .001$.

언어발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시행한 결과(<표 5> 참조),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언어발달의 매개를 통해 협력성($\beta = .06, p < .001$), 자기통제($\beta = .05, p < .001$), 주장성($\beta = .04, p < .001$)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 5> 매개효과 결과

| | <i>B</i> | <i>S.E.</i> | β | 95% <i>C.I.</i>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
|--------------------|----------|-------------|---------|--|
| 또래놀이상호작용→언어발달→협력성 | .07 | .01 | .06*** | (.04, .09) |
| 또래놀이상호작용→언어발달→자기통제 | .06 | .01 | .05*** | (.03, .07) |
| 또래놀이상호작용→언어발달→주장성 | .05 | .01 | .04*** | (.02, .06) |

*** $p < .001$.

3. 남녀 다집단분석

남아와 여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사회적 유능성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구조모형의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남아와 여아 간 다집단 분석을 이용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남아($\chi^2 = 1255.64$ ($df = 517$), CFI = .89, IFI = .89, RMSEA = .05)와 여아($\chi^2 = 1175.81$ ($df = 517$), CFI = .89, IFI = .89, RMSEA = .05)의 두 집단 모두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만족시켰다.

가. 측정동일성 검증

남아와 여아 각각의 집단에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만하며, 기저모형과의 χ^2 차이는 41.15, 자유도(df) 차이는 29로 나타나, χ^2 차이가 .05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두 모형 간 차이가 없으며, 보다 간명한 측정동일성 모형을 채택할 수 있다. 이는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능력, 사회적 유능성의 측정변인들이 남녀 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 구분 | χ^2 | $\Delta\chi^2$ | df | Δdf | p | CFI | IFI | RMSEA |
|---------|----------|----------------|------|-------------|-----|-----|-----|-------|
| 기저모형 | 2431.45 | | 1034 | | | .89 | .89 | .03 |
| 측정동일성모형 | 2472.60 | 41.15 | 1063 | 29 | .07 | .89 | .89 | .03 |

나. 구조동일성 검증

본 연구모형의 각 잠재변수들 간의 요인계수를 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약하는 구조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조동일성 모형 적합도($\chi^2 = 2479.82$ ($df = 1070$), CFI = .89, IFI = .89, RMSEA = .03)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며, 측정동일성 모형과의 χ^2 차이는 7.22로 자유도 차이가 7일 때의 χ^2 차이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모형이 남녀 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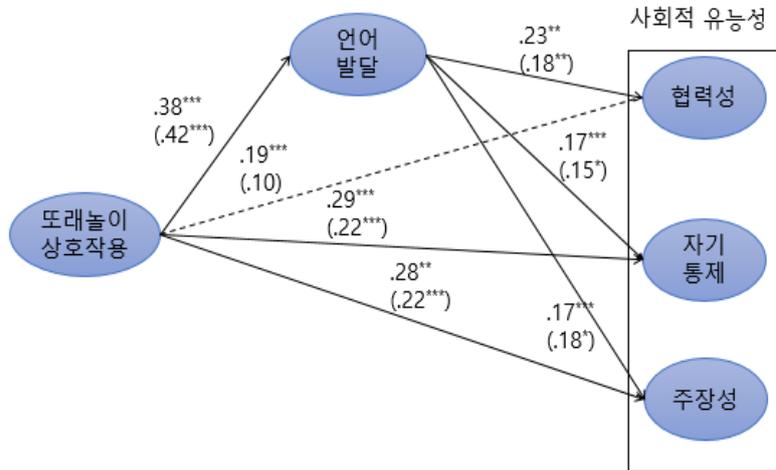
| 구분 | χ^2 | $\Delta\chi^2$ | df | Δdf | p | CFI | IFI | RMSEA |
|---------|----------|----------------|------|-------------|-----|-----|-----|-------|
| 기저모형 | 2472.60 | | 1063 | | | .89 | .89 | .03 |
| 구조동일성모형 | 2479.82 | 7.22 | 1070 | 7 | .41 | .89 | .89 | .03 |

다음으로, 특정 경로에서 남녀 집단 간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8〉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로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협력성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에게는 또래놀이상호작용이 협력성($\beta = .19, p < .001$)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아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10, n.s.$). 협력성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남녀 유아의 경우 모두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언어발달(남: $\beta = .38, p < .001$; 여: $\beta = .42, p < .001$), 자기통제(남: $\beta = .29, p < .001$; 여: $\beta = .22, p < .001$), 주장성(남: $\beta = .28, p < .01$; 여: $\beta = .22, p < .001$)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언어발달은 협력성(남: $\beta = .23, p < .01$; 여: $\beta = .18, p < .01$), 자기통제(남: $\beta = .17, p < .001$; 여: $\beta = .15, p < .05$), 주장성(남: $\beta = .17, p < .001$; 여: $\beta = .18, p < .01$)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준화된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표 8〉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

| | 남 | | | 여 | | |
|-------------------|-----|--------|---------|-----|--------|---------|
| | B | $S.E.$ | β | B | $S.E.$ | β |
|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 .29 | .05 | .38*** | .30 | .05 | .42*** |
| 또래놀이상호작용→ 협력성 | .20 | .06 | .19*** | .08 | .04 | .10 |
| 또래놀이상호작용→ 자기통제 | .46 | .09 | .29*** | .33 | .09 | .22*** |
| 또래놀이상호작용→ 주장성 | .34 | .07 | .28** | .31 | .08 | .22*** |
| 언어발달→협력성 | .32 | .08 | .23** | .19 | .07 | .18** |
| 언어발달→자기통제 | .36 | .12 | .17*** | .33 | .14 | .15* |
| 언어발달→주장성 | .28 | .09 | .17*** | .35 | .12 | .18** |

** $p < .01$, *** $p < .001$.



[그림 2] 표준화된 최종모형

* $p < .05$, ** $p < .01$, *** $p < .001$.

() 밖의 숫자는 남아의 경로계수이고, () 안의 숫자는 여아의 경로계수임.

다.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변수의 직접 및 간접 효과 그리고 총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 도래놀이상호작용은 언어발달과 사회적 유능성(협력성, 자기통제, 주장성)에, 언어발달은 사회적 유능성(협력성, 자기통제, 주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래놀이상호작용이 협력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직접적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언어발달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여,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총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도래놀이상호작용이 협력성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남아의 경우 직접효과가 유의한 반면($\beta = 0.19$, $p < .01$), 여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10$, *n.s.*).

〈표 9〉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효과 및 총 효과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또래놀이상호작용 | 언어발달 | .38** | - | .38** |
| | | (.42***) | - | (.42***) |
| 또래놀이상호작용 | 협력성 | .19** | .09*** | .28** |
| | | (.10) | (.07*) | (.17**) |
| 또래놀이상호작용 | 자기통제 | .29** | .06** | .35** |
| | | (.22**) | (.07*) | (.29**) |
| 또래놀이상호작용 | 주장성 | .28** | .06** | .34** |
| | | (.22**) | (.08**) | (.30**) |
| 언어발달 | 협력성 | .23** | - | .23** |
| | | (.18*) | - | (.18*) |
| 언어발달 | 자기통제 | .17** | - | .17** |
| | | (.15*) | - | (.15*) |
| 언어발달 | 주장성 | .17** | - | .17** |
| | | (.18**) | - | (.18**) |

* $p < .05$, ** $p < .01$, *** $p < .001$.

() 밖의 숫자는 남아의 경로계수이고, () 안의 숫자는 여아의 경로계수임.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4세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이 5세의 언어발달을 매개로 6세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구조적 관계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2012년 조사자료인 5차년도, 2013년 자료인 6차년도 자료, 2014년 자료인 7차년도 자료, 총 3차시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이 성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의 수준이 여아보다 낮았다. 이는 관련된 선행연구(김상아·이윤선, 2021; 이선정, 2020; 임현주·최항준·김현정, 201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능력이나 사회적 역량이 높게 태어난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된다. 남녀 유아 간의 차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외에도, 사회가 요구하는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임현주, 2014). 예를 들어, 부모는 보

통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많은 긍정적 놀이상호작용을 요구하며, 이러한 양육태도가 남아와 여아의 성별에 따른 긍정적 또래놀이상호작용의 차이를 유발한다(이미란, 2015). 여아에게는 남아보다 더욱 말을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른 언어발달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남아보다 여아에게 타인의 생각을 배려하며 양보하는 사회적 기술에 대해 더 강조하는 양육태도도 사회적 유능성에서 남녀 간 차이를 일으킨다(최윤희·문혁준, 2018). 따라서, 남녀 간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 차이를 선천적 성차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교사가 남아에게도 긍정적인 상호작용, 예의를 갖춘 언어 사용, 배려하는 사회적 기술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아의 거친 말투와 행동을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쳐져야 하며,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신념을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4세 또래놀이상호작용과 6세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5세 언어발달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이전 시점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이후 시점의 언어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언어발달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4세 시기의 긍정적인 또래놀이상호작용은 2년 후 만 6세 시기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 언어발달의 영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사회적 유능성이 증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아의 언어능력이 발달하여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이로 인해 사회적인 대응능력이 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4세의 또래상호작용, 5세의 언어와 인지능력, 6세의 자기통제력 간의 관계를 탐구한 장유진·홍예지·이강이(201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아의 언어능력이나 사회성 발달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유구중·이진우, 2021).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얼굴의 반 이상이 마스크로 가려진 상황을 겪은 유아들은 타인에게 깊은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김윤나, 2021; 홍예지, 2022). 또한,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불분명한 목소리와 보이지 않은 표정으로 인해, 유아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힘들고 타인의 반응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조기 언어발달에 취약한 환경을 지닌 다문화 가정의 유아에게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며, 유아기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해 사회문화적응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최

양미·김보현, 2020).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유아들의 어려움을 본 연구의 결과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또래놀이를 포함한 대면 상호작용의 빈도가 많이 낮아지며 유아의 사회적 언어 습득과 사용의 기회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언어 유창도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치게 된다(백지숙·권은주, 2017; 윤빛나, 2022).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적은 유아들은 사회적 장면에서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성이 낮아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임현주·최항준, 2017). 또한 예전에 비해 일상적인 언어 사용이 줄어들면서, 기존에는 별도의 교육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모국어의 규칙성과 화용론에 대한 인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임현주, 2020).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또래에게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어휘를 선택할 능력이 떨어지면서, 유아가 친구와 같이 놀이할 때에 요구되는 협력성과 사회적 유능성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장영은·성미영, 2015). 또래놀이상호작용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또래의 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유아는 양보와 같은 자기통제가 힘들 수 있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풀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언어발달 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구조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에서 전체적인 효과 여부는 동일하였으나, 직접효과에서 부분적인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녀 모두 또래놀이상호작용은 언어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언어발달의 매개를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협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또래놀이상호작용이 협력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아는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두 집단 모두 언어발달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총효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또래놀이상호작용이 협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남녀 아동 모두 긍정적인 또래놀이상호작용을 통해 언어수준이 발달하고, 이를 매개로 사회적 유능성이 향상되지만, 특히 남아의 경우 협력성 발달에서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의 이러한 관계구조의 안정성은 심리사회적 분야에서 남녀 성별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Hyde의 젠더 유사성 가설(Gender Similarities Hypothesis)에서는 남녀는 대부분의 심리변수에서 비슷하며 성차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심리적 성차를 증폭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러한 성차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

로 인해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 등 세 심리적 변수가 각각 수준의 차이가 나더라도 연동의 메커니즘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 등 세 요소는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서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소질과 능력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변인 간 관계구조에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에도, '협력성'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녀 두 집단 모두 언어발달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나, 남아의 경우만 또래놀이상호작용이 협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의 요구에 따른 성 유형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아에게는 활동성이 강조되는 반면, 여아에게 수동성이 강조되며 성별 간 차이가 강화되는 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조복희·이윤희, 2020). 즉 친사회적 정보를 보다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과정이 없더라도, 남아는 여아보다 비언어적 소통방식을 이용해 협력성을 표출하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남아 뿐 아니라 여아에게도 중요한 특성이므로, 이후에는 성 유형화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기대, 특히 적절한 부모의 기대와 관련된 양육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언급한 바처럼 부분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인 총효과를 고려한 관계구조에서는 주요변인 간 남녀 유아에게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연구문제 1의 각 변인, 즉 유아기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 수준에 성차가 있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지만,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언어인지 발달,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종단적 관계구조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홍예지·안혜령·이순형(201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남아와 여아에 관계없이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언어발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남녀 유아의 육아방식의 차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게 당연하므로 또래 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방치한다거나, 여자아이들은 생각한 바를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말로 먼저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등의 육아방식이 결과적으로 남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분석 방식이 가진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3년치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만, 종단적 자료 중에서도 4, 5, 6세라는 특정 시점에서의 자료만 고려했기에 연령을 아우르는 일반화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 후속연구에서는 확장된 연령범주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설계를 통해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언어발달,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구조에 있어 성별 차이의 영향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성별 요인 외에도 유아의 기질 등 다른 개인적 차이가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언어발달,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성별 외의 다른 변인을 고려한 접근방식을 통해 관계구조의 다각적 측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패널의 2차 자료를 사용하였기에 변수 선택의 자유도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탐색하고, 그 중 관련성이 높은 통제변수를 별도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제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모형 설정을 통해, 적절한 통제변수를 포함한 변인 구조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유아기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유아기 또래놀이상호작용의 영향을 탐구하는 것에 있어 전국규모의 종단적 패널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주로 추론에서 존재된 언어발달의 매개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둘째,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특히 사회적 발달적인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유아기 또래놀이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과 교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성인의 지나친 과보호와 놀이 개입이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기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또래놀이상호작용이 언어발달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유아들 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을 더욱 중시하도록 하고,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언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고려해야 하는 성별 차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전문적인 인식과 태도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남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킬 때 적합한 교육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적용해볼 때, 더욱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유아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사회적 유능성이 증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유아의 언어능력이 발달하여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이로 인해 사회적인 대응능력이 더욱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고, 마스크 착용으로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입모양 등을 볼 수 없게 되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특히 언어능력이나 사회성 발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유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연구자들은 실제로 코로나 19 전과 후, 유아의 언어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저하 현상이 일어남을 보고하였다(유구중·이건우, 2021). 유아기 언어능력과 사회성 발달은 전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아의 흥미와 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이나 숲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기존의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설 기업과 협력해 부모들에게 놀이 배우처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놀이 중심의 조화로운 활동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일대일 또는 소집단의 협동적 활동형식을 통해 또래와의 접촉을 권장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예산지원을 통해 유아가 안전하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놀이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마련하며, 유아의 놀이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놀잇감과 언어발달을 위해 입모양을 볼 수 있는 유아용 투명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비하여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유아가 또래와 충분히 접촉하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실제적이고 접근성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또래 상호작용과 언어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유아의 사회적 발달은 또래 관계에서의 자발적이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 촉진되므로, 이를 방해하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의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언어발달을 위한 부모의 올바른 인식

과 태도 형성을 돕는 우수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모전 혹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하고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우수 프로그램 또는 좋은 부모교육 자료를 발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캠페인과 부모/교사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남녀 유아의 육아방식 차이와 교육/지원의 편파성을 탈피해야 한다. 전통적인 육아 방식에서는 남아에게 경쟁과 쟁취를 강조한 반면, 여아에게는 양보와 타협을 권함으로써 또래 간 상호작용 방식이나 언어 사용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또래놀이상호작용과 언어발달이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게 적용됨을 보여준다.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차를 고려한 발달 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나(최연화, 2011), 성별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불러오는 교육 자원의 편향과 불필요한 남녀 구분에 따른 자원 낭비는 지양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효율성과 절약성을 반영하여 교육 자원 이용을 최적화하고, 남녀 유아의 공평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성별 차이를 전제하는 전통적인 관념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론에 바탕을 두어 교육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성차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 영유아 발달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양성성을 갖춘 장난감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여아와 함께 도전적인 야외 모험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거나, 남아와 함께 언어교류를 촉진하는 역할놀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나람·윤예린·김성식(2021).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요인의 영향. *초등교육연구*, 34(1), 141-162.
- 김경은(2017).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간의 종단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3), 391-399.
- 김상아·이윤선(2021).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과 의사소통 능력 및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20(3), 77-99.
- 김수정·곽금주(2010). 초등 일학년 학교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단기 종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9-37.
- 김윤나(2021). 코로나19 이후 유아들의 유치원 일상 속 마스크 쓰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유아교육연구, 41(6), 107-131.
- 박성덕·장연주(2016). 부모,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2), 229-251.
- 박영희·김신곤(2017).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언어능력 간의 관계 :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1(5), 219-238.
- 백지숙·권은주(2017).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언어 및 문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99-114.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 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송나윤·홍주연·노태희(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과학과 서책형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의 삽화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실태 분석. *초등과학교육*, 39(1), 1-14.
- 유구종·이건우(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유아교육기관 가정연계 운영관리를 위한 Concor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6(6), 269-290.
- 윤빛나(2022). COVID-19(코로나19) 시기의 아동 보육 실태 및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 2019년생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문옥·전홍주(2018).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 공동 양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3(3), 97-116.
- 이미란(2015).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191-214.
- 이민주·이영신·유정은(2015). 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및 성별에 따른 언어 발달 차이. *열린부모교육연구*, 7(3), 37-52.
- 이선미(2017). 유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 언어능력,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정(2020). 유아 성별에 따른 교사-유아 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숙·신은수·박은혜·김영태·유영의·최일선·유홍옥(2009).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도구 개발. *유아교육학논집*, 13(4), 269-290.
- 임현주·최항준·김현정(2015).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 어머니변인 및 가정환경,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인지·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6), 247-264.
- 임현주(2018). 유아 변인, 가족 간 상호작용, 양육변인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1), 183-206.
- 임현주(2020). 유아의 또래놀이, 교실환경,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5(1), 217-240.
- 임현주·최항준(2017). 유아의 개인변인, 타인(부모, 가족, 또래, 교사)과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용·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 24(2), 237-259.
- 임현주·최항준·김현정(2015).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 어머니변인 및 가정환경,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인지·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6), 247-264.
- 장영은·성미영(2015). 유아의 가정환경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18.
- 장유진·홍예지·이강이(2018).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이 언어·인지능력을 매개로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2), 133-144.
- 장혜진·김은설·송신영(2014). 아동 개인 및 가정환경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기 초 학교 적응 차이 연구. 초등교육연구, 27(2), 95-122.
- 정진나(2021). 학령기로의 전환 동안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및 어머니 우울과 유아 사회적 유능성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41(3), 79-102.
- 조복희·이윤형(2020). 영유아발달. 파주: 교육과학사.
- 조선영(2021). 감각-운동 중심의 융합 활동을 기초로 한 그룹 작업치료가 초등학교 1학년 부적응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실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2), 67-75.
- 최양미·김보현(2020).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수준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부적응 행동 분석 및 함의. 다문화와 평화, 14(3), 48-72.
- 최연화(2011). 남녀 유아의 놀이성,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구. 육아지원연구, 6(2), 147-164.
- 최윤희·문혁준(2018).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7), 221-228.
- 최혜영·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최혜진·곽효민(2017).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연령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2(3), 145-168.
- 최효선(2020). 유아의 창의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예지·안혜령·이순형(2017).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사회적 유능감의 종단적 관계에서 언어·인지발달의 역할: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17-217.

홍예지(2022). 어머니가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어머니의 사회적 유대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순차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3(1), 19-32.

Bulotsky-Shearer, R. J., Bell, E. R., Carter, T. M., & Dietrich, S. L. R.(2014). Peer play interactions and learning for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The moderating role of classroom quality.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5(6), 815-840, <https://doi.org/10.1080/10409289.2014.864214>.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 105-120, [https://doi.org/10.1016/S0885-2006\(99\)80048-9](https://doi.org/10.1016/S0885-2006(99)80048-9).

Gresham, F. M. & Elliott, S. N.(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American Guidance Service.

Hong, Y.-J., Kang, S., Lee, K., & Choi, N.(2017). The longitudinal effects of young children's home environment stimuli on soci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linguis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4(4), 161-178.

Kim, M. J.(2008). An exploratory study of student's experience of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first grad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9(1), 181-210.

Parker, J. D.,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Raver, C. C. & Zigler, E. F.(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https://doi.org/10.1016/S0885-2006\(97\)90017-X](https://doi.org/10.1016/S0885-2006(97)90017-X).

Ross, H., Vickar, M., & Perlman, M.(2010). Early Social Cognitive Skills at Play in Toddlers' Peer Interactions. *The Wiley-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1, 510-531, <https://doi.org/10.1002/9781444327564.ch17>.

- 논문접수 8월 4일 / 수정본 접수 9월 1일 / 게재 승인 9월 14일
- 교신저자: 김태연,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ky7@jbnu.ac.kr

Abstract

Mediating effect of language ability between play interaction and social competence of boys and girls

Ling Yun, Tae-Yeo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language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interaction of four-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of six-year-olds, and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Accordingly,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were used on longitudinal data from years 5–7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data. First, peer interaction, language development, and social competence were all significantly lower in boys than in girl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structure between the three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more children interact with peers at play, the more language skills they develop, and more language skills increase social competence later. Third,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structure of peer interaction, language development, and social competence. Based on this, education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escribed,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presented.

Keywords: peer play interaction, language development, social competence